

일본 해안경관 형성과정의 메커니즘 분석

이석환^{1*}

¹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The Mechanism of Coastal Landscape Formation Process in Japan

Seok-Hwan Lee^{1*}

¹Department of Urban Design & Development, Kyungung University

요 약 해안경관은 해안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적·자연적 요소의 통합된 장이며, 해안의 구성요소인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공의 총체적 조망이다. 해안경관은 일반적으로 육역과 다른 경관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도시경관과는 다르게 접근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을 사례로 해안경관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인식단계, 형성단계, 실천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해안공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최종적인 형태로 통합하도록 하는 조사체계 구축, 지역의 자연특성과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해안경관형성의 정책방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안경관형성의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본 해안경관형성의 메커니즘에 나타난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해안의 잠재된 매력을 발견하여 지역의 가치향상과 더불어 국내 해안경관형성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oastal landscape is a collective setting of artificial or natural elements along the seaside. The approach method for the coastal landscape form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urban landscape 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 of coastal landscape formation process in Japan in the aspects of recognition phase, formation phase, and practice phase. The characteristics of coastal landscape formation process in Japan are construction of a survey system for integrating diverse landscape elements as a final coastal landscape, construction of a coherent evaluation system responding the local natural and spatial characters, and building a cooperative system responding the police of coastal landscape formation. This study suggest the implications both for the improvement of domestic local values and for the ways of the domestic coastal landscape formation.

Key Words : Coastal landscape, mechanism of coastal landscape formation process

1. 서론

1.1 배경 및 목적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내의 해안경관은 독특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형성하여 온 해안 도시 및 지역을 지니고 있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개발된 해안공간은 차별화된 개발을 지향하였으나, 다양한 형태의 관광개발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짐으로 인하여 해안의 우수한 경관자원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및 지역민의 자족성 감소와 더불어 자연환경관의 부조화에 따른 해안경관의 파괴 등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다. 이는 해안경관에 대한 인식의 부재, 유지·관리 체계 미비, 그리고 이에 따른 점진적인 원형 파괴에서 그 원인이 있다. 그 결과 해안의 방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해안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해안경관 관리가 시급한 실

이 연구는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교신저자 : 이석환(lshsun@ks.ac.kr)

접수일 10년 09월 30일

수정일 10년 10월 08일

게재확정일 10년 10월 15일

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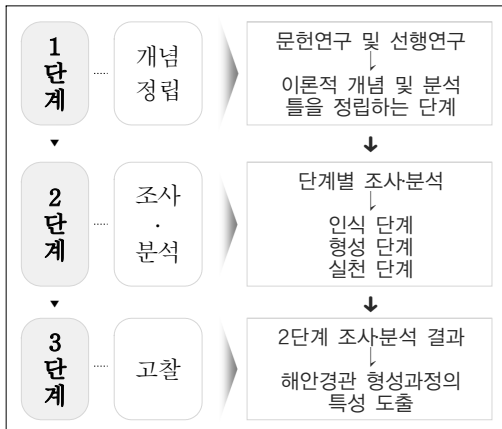
우리의 경우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됨으로써, 해안경관 관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가져왔으나 해안경관의 경우 현재 그 제도적 취지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관법이 도시경관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해안경관을 검토하고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합적 접근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은 국내 해안의 잠재된 매력을 발견하여,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국내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관리이념과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조사·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과정 및 방법

첫 단계는 이론적 개념 및 분석의 틀을 정립하는 단계로서, 문헌검토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해안경관의 개념과 접근방식을 파악하고 이해한다.

두 번째 단계는 조사·분석 단계로서,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인식단계, 형성단계, 실천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조사·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의 특성을 도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선행 연구 검토

최근까지 해안경관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분류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주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해안경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연구이며, 둘째는 해안경관계획 및 효율적인 해안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분석·평가기법 연구, 마지막으로 해안경관 특성을 고려한 인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에 관한 연구이다.

[표 1] 주제별 선행연구 검토

분류	연구자	연구 내용
국내	사례 연구 박영선 (2008) 윤상호 (2007)	해외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해안경관 관리제도 및 내용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해 경관유형별로 관리방안을 제시함
	평가 연구 조은일 (2008) 구본아 (2008) 노영란 (2008)	해안경관의 물리적 속성과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를 정량화하여 주요변수를 예측하여 경관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함
	지침 연구 박상현 (2007)	각종 인허가 실태를 경관유형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각 유형별(하천, 건물 등) 경관특성을 고려한 인허가 기준을 제시함
일본	기본 방침 국토교통성 (2005) 오카다 (2004)	지역주민, 해안이용자, 해안선을 관리하는 행정, 전문가 등이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접근 및 정비방침을 제시함

이상으로 3가지 유형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해안경관에 관한 기존 연구는 제도적·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각 연구가 부분적 진행되고 있거나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은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과거의 전통성 및 역사성을 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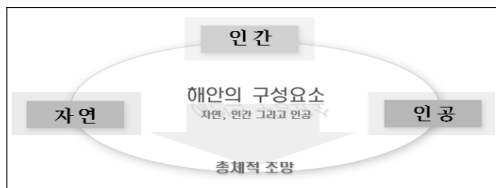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역가치 향상과 더불어 국내 해안경관형성 수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인식단계, 형성단계, 실천단계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2 해안경관의 개념

해안경관은 연안의 이용과 개발행위 즉, 건축물 또는 구조물 건설에 의해 연안의 상태로부터 인간이 시각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4] 즉, 육역으로부터 보이는 해역의 풍경과 해역으로부터 보이는 해역을 포함하는 육역의 풍경으로 구성된다.[4]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해안지역의 경관을 해안경관, 연안경관, 해양경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해안선을 중심으로 육역과 해역을 포함하는 유사한 공간적 범위를 사용하고 있다.[7] 해안경관의 가치는 조망 대상과 이를 바라보는 인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우수한 해안경관의 창출 및 보전을 위해서는 이들의 상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해안경관은 해안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물리적·자연적 대상 즉, 해안의 구성요소인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공의 총체적인 조망이라 이해한다.



[그림 2] 해안경관의 개념

2.3 해안경관의 접근방식

국내에서 해안경관을 바라보는 태도는 자연경관의 범주 속에 있는 것으로 다루어왔기 때문에 해안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해안경관을 관리 대상 중심으로 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접근방식은 단일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유리하지만, 해안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기능적·형태적·문화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안공간은 경관적 속성상, 수평적인 선형이 강하기 때문에 개방된 조망과 연안의 인간 활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육역과는 다른 경관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4]

그러므로 해안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과정 전부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그 대상을 인식

할 때 높은 수준의 해안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안경관의 접근방식이 육역의 일반적 경관 및 도시경관에 대한 접근방식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안경관을 형성을 위한 접근방식은 해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떻게 존재해야하는가? 그 지역의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떠한 장소였는가? 이들 해안은 어떠한 해안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해안공간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일본 해안경관형성 메커니즘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생태환경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즉, 해안경관 검토의 인식관점, 해안경관 형성을 위한 가치관 및 평가 기준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체계 구축에 의한 실천이 해안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일본을 접근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일본의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인식단계, 형성단계, 실천단계에서 조사·분석하여 그 메커니즘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1 인식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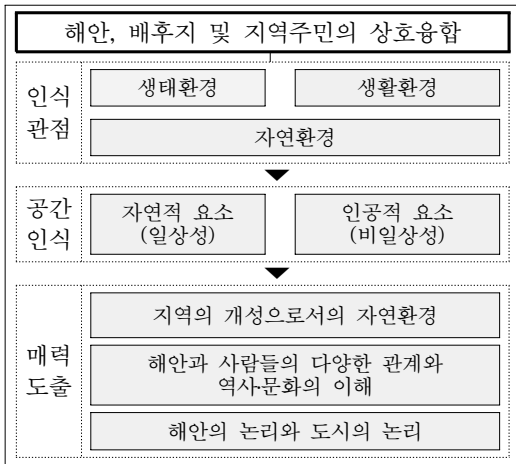
해안공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온 해안지형을 기반으로 생태계나 인간생활이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해안경관의 형성을 위해서 자연환경, 생태환경,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생태환경의 조화 즉, 해안, 배후지 및 지역주민의 상호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해안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최종적인 공간의 형태로 통합하기 위한 인식단계의 접근개념을 크게 세부분 즉, 해안공간의 인식관점, 해안공간의 인식, 해안공간의 매력 도출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해안공간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변경 및 존중, 생태환경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파악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재인식, 그 지역의 계승·재창조, 그리고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접근태도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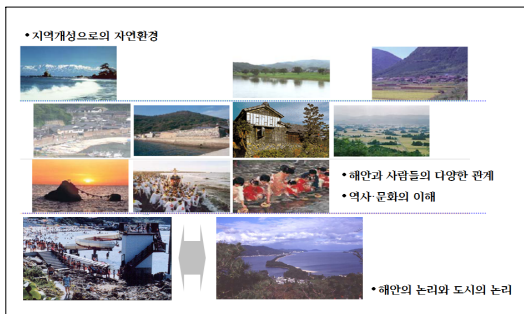
해안의 공간에 대한 인식에서는 해안공간을 정적 공간인 동시에 동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연재해(태풍,

해일, 해안침식 등)에 의한 피해에서 해안을 보호할 수 있는 건조물과 같은 인공요소와 자연요소들을 주요소로 인식하고 내·외부시점을 동시에 고려해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 해안경관의 접근개념

해안공간의 매력 도출에서는 본질적으로 도시와 해안의 참모습은 다르다는 인식을 취하고 있다. 그 지역의 역사·문화가 해안 공간 어느 지점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중요시한다. 이와 같은 가치를 살리기 위한 기준·원칙·방법을 전문가, 행정,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검토한다. 즉, 지역의 역사·문화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안에 접목시킴으로써 지역의 기억을 재생·계승·재구축하는 것을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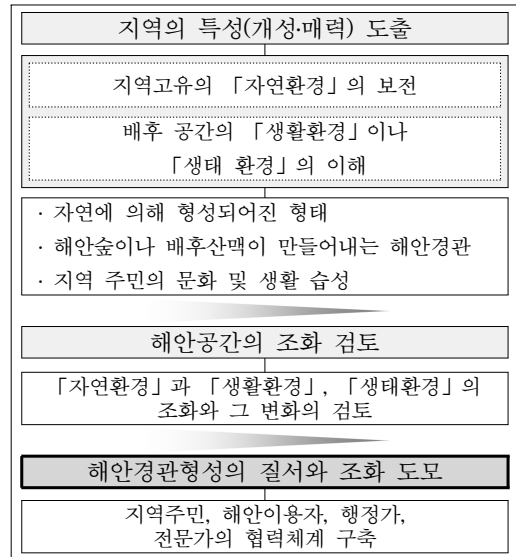


[그림 4] 해안공간의 매력

3.2 형성 단계

일본 해안경관 형성의 목적은 '자연환경을 기초로 한 생활환경이나 생태환경의 조화'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그리고 생태환경이 하나로 조화되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가 해안은 “있어야 할 곳”이나 “있어야 할 것”이 다르므로, 해안이나 배후 공간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원칙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5] 해안경관형성의 가치관

해안경관의 향상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후지를 포함한 해안의 자연환경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배후지를 포함한 해안이 갖는 자연지형을 보호·보전하는 것이 양호한 해안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기술적·경제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배후지를 포함한 해안이 가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의 공간 특성이나 변화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해안경관은 시각적인 관계성, 해안과 지역주민과의 연계, 토지이용상황 등 배후지역과 일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해안방호나 환경, 이용, 경관 등의 다양한 시점을 단편적으로 시설에만 치중하지 않고, 배후지역의 공간특성이나 상호기능의 정합성(整合性)을 가지면서 일체적인 공간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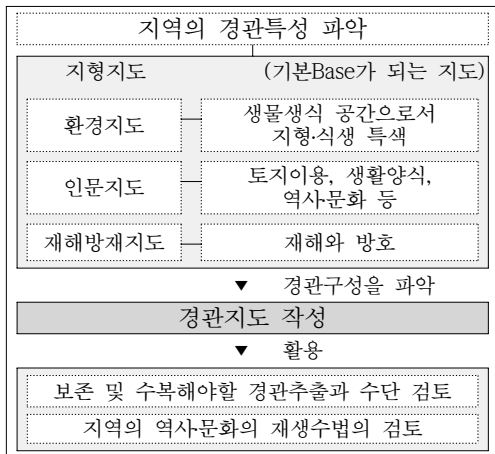
셋째, 자연환경을 기초로 한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의 공간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질서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특히 해안공간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물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및 해안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또한 해안공간의 총체적인 조망을 공간질서에 기초하여 조화 있는 경관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행정, 지역주민(해안이용자 포함)이 참여·협동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실천 단계

해안공간은 자연특성이 변화하는 동적인 공간으로서 해안의 이용이나 환경변화에 따른 인위적 영향이 해안과 배후지역 공간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즉 해안경관은 각 지역의 해안마다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검토 항목이나 경관형성의 방향성 및 방법도 달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해안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최종적인 공간의 형태로 통합하기 위한 실천단계를 크게 4단계 즉, 조사단계, 구상·계획단계, 설계·시공단계, 검토·협력체계 구축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조사단계에서는 지역의 경관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변천과정, 생태계 및 배후지역의 변천과정, 해안방호 및 재해특성 등을 고려해 해안과 배후지를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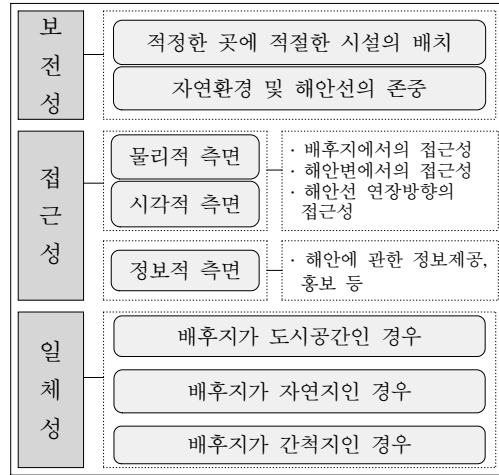


[그림 6] 지역의 경관특성 파악 및 활용

이는 지역의 경관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중첩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조사하고 파악하기 위한 경관지도도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관지도도는 보존해야 할 경관 추출과 조망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검토, 수복해야 할 경관 추출과 개선책의 검토, 지역의 역사·문화를 재생할 수 있는 재생수법의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구상·계획단계에서는 지역의 경관특성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 문화·역사, 해안재해 및 방호 등과 관련된 다양한 특징을 추출하고 객관적인 근거 하에

해안경관 형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한다.



[그림 8] 해안경관형성의 고려사항

해안경관 형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검토의 초기단계부터 경관법 및 경관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발주체와 관련계획(배후지역의 도로나 시가지, 도시공원, 하천 등의 계획, 인접지역의 계획 등)과의 적극적인 조정·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설계단계에서 고려사항을 구상·계획단계에서 미리 상정하고 검토하고 있다.



[그림 7] 구상계획 시 고려사항

설계·시공단계에서는 시설·구조물 등의 형태, 소재, 색채 등을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안공간전체와 그 부분을 구성하는 시설·구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한다. 해안경관설계는 자연환경이나 생태환경, 생활환경의 관계 속에서 해안공간의 조화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대상이

되는 물리적 환경전체를 종합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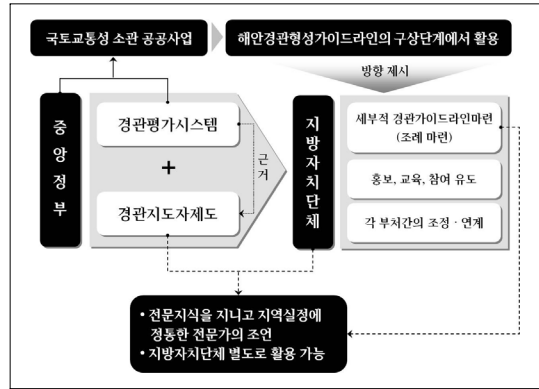
[그림 9] 설계의 활용 예시

정돈된 공간 창출이나 특징적인 경관체험의 연출을 위해서는, 경관구성요소 및 사업·관리주체가 다르므로, 앞서 구상·계획단계에서 언급한 해안경관형성의 고려사항이나 관계자 및 관련계획과의 조정·연계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의도나 결정사항이 일관성 있게 시공에 반영되도록 하기위해서 디자인감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검토·협력체계에서는 자연환경과 생태환경, 생활환경의 관계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검토 체계의 구축을 중요시 한다. 이를 위하여 해안경관 검토는 지역의 자연특성이나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부터 상호 환류체계를 갖춤으로써 일관성 있는 검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해안이용자, 행정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그리고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경관지도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의 이해를 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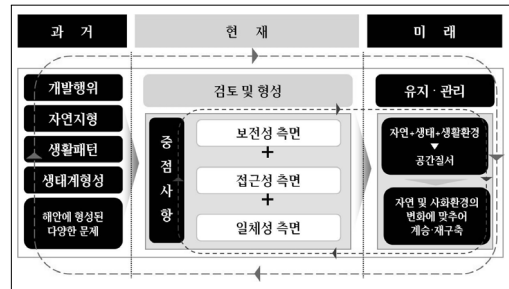
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10] 협력체계 구축

3.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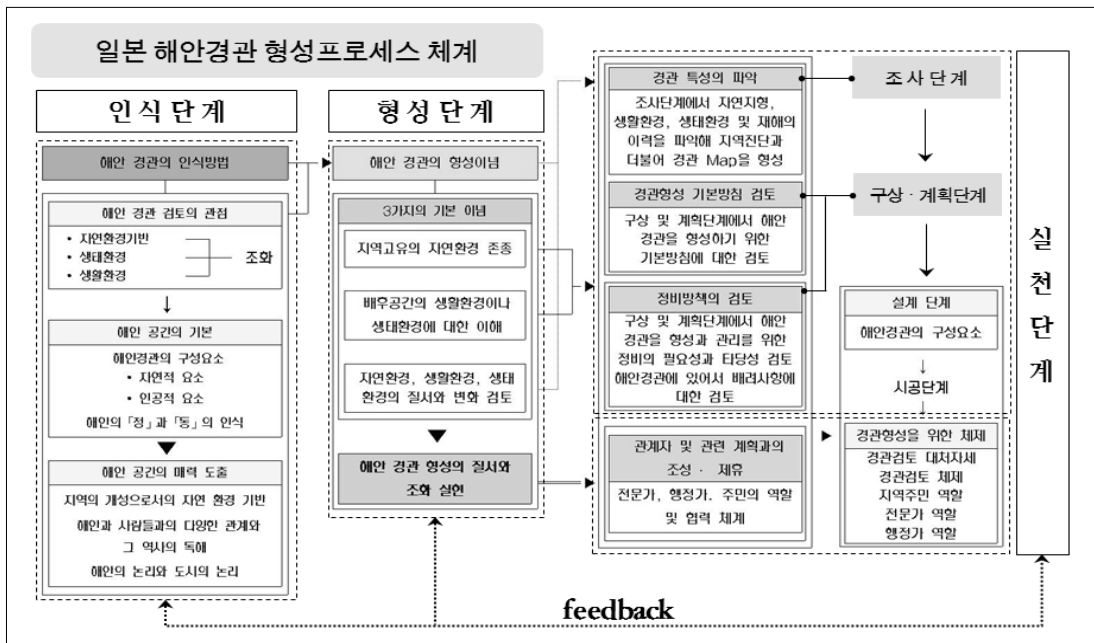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인식단계, 형성단계, 실천단계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일본의 해안경관형성 방법은 경관을 바라보는 접근방식, 가치관, 실천방법 등을 전체 해안의 경관계획의 틀 속에서 배후지역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해안경관계획은 보전성 측면, 접근성 측면, 일체성 측면, 연계성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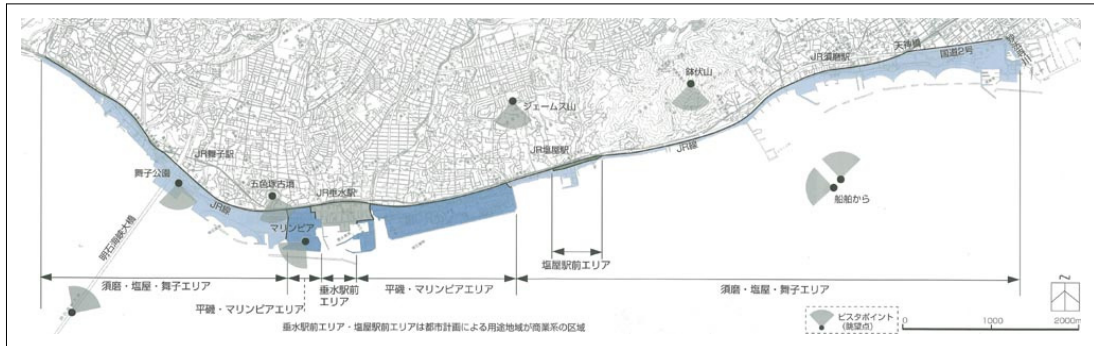
[그림 11] 일관성·연계성 측면

이러한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커니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역사·문화, 자연환경 등 경관자원의 발굴하고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여 계승·재구축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행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지역의 역사·문화를 파악하여 재생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12] 일본 해안경관 형성과정에 나타나는 메커니즘



[그림 13] 일본 고베시 일본 해안경관형성 구역도

둘째, 해안공간은 자연환경을 기초로 한 생활환경이나 생태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관지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해안의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안공간 전체의 형태를 위화감 없이 조절하기 위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지역의 자연특성과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초기단계부터 상호 피드백을 실시하면서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안경관검토의 초기단계부터 조사, 구상·계획, 설계, 시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해안경관형성 정책방향이 조화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발

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상호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 해안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메커니즘 사례를 중심으로 인식단계, 형성단계, 실천단계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교통성 소관사업의 각 단계 별로 경관평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해안경관형성의 일관성·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적용방법 등을 일관된 평가체계 하에 경관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주체와 관계계획과의 조정·연계 및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의 각자의 충실한 역할과 협력에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주민, NGO,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와 파트너십 유도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국가·지방정부 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이해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해안관리자 및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고용기회 창출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우리의 해안 도시들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해안도시개발, 산업입지, 매립·간척 등으로 개발되었다. 이로 인해 해안 도시 본래의 매력적인 해안자원들이 급속도로 파괴되거나 소멸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해안 도시들과 내·외적인 조건은 다르지만 본 연구를 통해 선진국가의 해안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과정, 방법 등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연구가 향후, 친환경적이고 매력적인 국내 해안경관 창출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올바른 관리이념과 원칙의 재설정하는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본의 문헌사례를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실제 사례를 통한 검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해안경관형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총괄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공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영란박성진·이청웅, “해안경관계획을 위한 물리적 구성요소 개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10 n.04, 통권36호, 2008, pp167~175

[2] 조은일·이병걸, “제주도와 부산시 해안변의 해안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평가”,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4권 7호 통권 제33호, 2008, pp127~133

[3] 구본아, “부산 해안경관의 시각선호도 분석”,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4] 윤상호,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제20집 제3호, 2007, pp51~75

[5] 박상현,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7

[6] 김경인·김종하 역, “수변의 경관설계”, (주)브이아이랜드, 2005

[7] 윤상호 등,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 12

[8] 김나영, “부산의 해안경관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9] 国土交通省 河川局港湾局, 農村水産局 農村振興局水産庁, 『海岸景観形成ガイドライン』, 2005 .12

[10] 岡田智秀, 土木学会景観・デザイン委員会デザインワークショップ, 2004

[11] 東京都, 『景観づくの基本方針』, 2000. 07

[12] 海岸研究会編, 『ふるさとの海岸づくりアイデア集』 技報堂出版, 1991.10

이 석 환(Seok-Hwan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공학사)
- 1991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석사)
- 1998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경관, 장소성, 도시재생과 문화